

박현주, '미래에셋 3.0' 승부수... 글로벌 투자 플랫폼 출범

(회장·글로벌전략가)

홍콩법인, 'MAPS' 공식 공개
AI 기반 자산관리 기능 단계적 도입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 투자 지원

“오늘은 시스템 하나가 열린 날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투자철학이 세상에 나오는 날입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글로벌전략가(GSO)는 지난 26일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투자 플랫폼 'MAPS(Mirae Asset Portfolio Service)' 공개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을 미래에셋 홍콩의 새로운 20년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관 중심이던 홍콩 비즈니스가 리테일 투자자까지 확장되는 '비즈니스의 변곡점'으로 규정했다.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은 29일 글로벌 투자 플랫폼 MAPS를 공식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MAPS는 미래에셋의 차세대 성장 전략인 '미래에셋 3.0' 비전 아래 처음 공개된 글로벌 투자 플랫폼이다. 전통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자산관리 기능까지 단계적으로 접목할 계획



26일 홍콩 현지에서 'MAPS by Mirae Asset' 공식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왼쪽부터)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Stanley Chen Head of Wealth Management, Shasha Huang Head of Investment and capital markets,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부회장,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GSO,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성준업 대표, 상해사무소 Elisa Zha 소장, 홍콩법인 Alex Sung Head of IT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이다.

박 GSO는 “우리가 만든 MTS는 단순히 주문하고 체결하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이 아니다”라며 “가격만 보는 앱이 아니라 고객이 시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숫자만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 그리고 미래에셋의 철학이

흐르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전통 금융 자산과 디지털자산이 함께 제공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콩을 첫 출시 지역으로 선택한 것도 글로벌 전략과 맞닿아 있다.

홍콩은 글로벌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아시아 금융허브이자 디지털자산 제도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장이다.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은 지난 4월 홍콩 증권선물

위원회(SFC)로부터 디지털자산 리테일 라이선스를 최종 승인받아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 GSO는 “미래에셋의 목표는 글로벌 투자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며 “홍콩은 그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에서 시작해 일본, 미국,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해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있던 고객이 손 안의 미래에셋 플랫폼 하나로 투자하고 자산을 관리하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MAPS는 미래에셋증권이 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구축해온 모바일 투자 플랫폼 운영 경험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다. 국가별 플랫폼을 넘어 글로벌 투자자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시장과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향후에는 외국인 리테일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 환경도 구축할 예정이다. 안정성과 운영 체계를 충분히 검증한 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 GSO는 플랫폼의 핵심 가치로 ‘클라이언트 퍼스트(Clients First)’도 거듭강

조했다.

그는 “회사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먼저 두고 단기 실적보다 고객의 장기적인 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게 회사에 좋은거보다 먼저 ‘이게 고객에게 정말 좋은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에게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왜 필요한 투자이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야 한다”며 “판매’가 아닌 ‘설명과 교육’으로 고객과 함께 가는 것이 미래에셋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홍콩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시장으로 MAPS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기반 투자 서비스를 결합한 차세대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MAPS는 미래에셋 3.0 비전을 고객 접점에서 구현하는 첫 글로벌 투자 플랫폼”이라며 “전통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 AI 기반 투자 서비스를 결합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더 넓은 투자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SK하이닉스, 내달 10일 ADR 상장... 7조 수급 기대감

글로벌 자금·기업가치 재평가 전망
반도체 구조적 성장세 지속 예상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계기로 7조원 규모의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과 함께 기업가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을 주도하며 국내 반도체 업종의 성장세도 지속될 것이라 분석이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29일 유튜브 웨비나 ‘반도체 시장 전망과 TIGER 반도체 ETF 투자전략’에서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ADR 상장을 통해 최소 7조원의 수급이 몰리고, 나스닥 지수 편입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다음 달 10일 예정된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 기관투자자와 패시브 자금의 SK하이닉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대표 반도체 지수에 편입될 경우 약 46억달러(약 7조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R은 미국 투자자가 미국 증시에서 해외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예탁증서다. SK하이닉스는 신주 발행 방식으로 ADR을 발행해 다음 달 10일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ADR 상장이 SK하이닉스의 저평가를 해소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2027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약 6배로 글로벌 경쟁사인 마이크론보

다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SK하이닉스 주식시장 접근성과 패시브 수급 차이 때문에 경쟁사 마이크론 대비 저평가됐었다”며 “ADR 상장을 계기로 이 격차가 줄어들려는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만 TSMC 사례도 제시했다. ADR 상장 이후 글로벌 투자자 저변이 확대되면서 ADR 가격에 프리미엄이 형성됐고, 이후 본주가 이를 따라가며 기업가치가 재평가됐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AI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한 구조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 경쟁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메모리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12단 HBM4E 샘플을 공급했고, SK하이닉스 역시 개발 일정을 앞당기며 차세대 메모리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엔비디아가 HBM 공급 확대를 요청할 정도로 AI 메모리 수요는 공급을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모리 가격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 본부장은 “모건스탠리가 메모리 가격의 구조적 상승을 의미하는 칩플레이션(Chipflation)”을 전망하는 등 업황 개선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 확대가 지속되면서 메모리 가격과 수익성 개선이 단기 사이클이 아닌 구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해외 부동산 투자 56조 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

금감원, 금융사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부동산대체투자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55조9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투자 규모가 금융권 전체 자산 대비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글로벌 금리와 해외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2025년 12월 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권 총 자산 7737조9000억원의 0.7%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보험사가 3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1조9000억원(21.3%), 증권 7조2000억원(12.8%), 상호금융 3조4000억원(6.1%), 여신전문금융회사 2조원(3.5%), 저축은행 1000억원(0.1%)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투자 비중은 북미가 34조3000억원(61.4%)으로 가장 컸으며, 유럽 10조1000억원(18.1%), 기타 및 북서지역 7조8000억원(14.0%), 아시아 3조6000억원(6.4%) 등이 뒤를 이었다. 만기별로는 2026년까지 11조1000억원(19.8%), 2030년까지는 전체의 67.6%인 37조8000억원이 만기를 맞는다.

해외 단일사업장에 투자한 32조3000억원 가운데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투자 규모는 2조8000억원으로 6.45% 수준이었다. 지난해 4분기 일부 사업장에서 EOD가 새롭게 발생하면서 기존 EOD 사업장의 상황·청산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규모가 소폭 증가했다. 자산 유형별로는 복합시설의 EOD 비율이 35.93%로 가장 높았다. /허정윤 기자

삼성증권, 업계 최초 ‘30억 이상’ 고객 1만명 돌파

초부유층 고객 자산관리 경쟁력 강화
2010년부터 운영한 채널 ‘SNI’ 호응

삼성증권이 업계 최초로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 개인 고객 수(법인 제외) 1만명 시대를 맞았다. 초부유층 고객 기반 확대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삼성증권은 자사의 30억원 이상 개인 고객 수가 지난 19일 기준 1만645명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말(5862명) 대비 약 81.6% 성장한 수치다.

같은 기간 삼성증권 고액자산가의 자산 규모 역시 크게 증가했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 고객 자산이 2025년 말 약 12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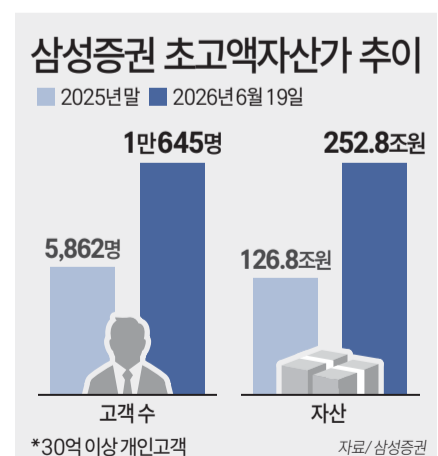
8000억원에서 6개월 만에 2배 가량 급증해, 252조8000억원을 달성했다.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개인 고객도 업계 최초로 2000명을 돌파했다.

삼성증권은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동향을 통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 등의 키워드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자신의 절반 이상을 넘어설 만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 3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의 포트폴리오(지분성 제외)를 분석해 본 결과, 2025년 말에는 국내주식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였던 반면, 지난 19일 기준으로는 57%로 늘어났다.

삼성증권이 2010년부터 운영한 초부유

층 전담 채널 ‘SNI’도 호응을 얻고 있다. 삼성증권은 ‘SNI’ 뿐만 아니라, 기존 전담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문별 투자·승계·구조화 니즈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패밀리오피스’, 세무·부동산·법무 등을 아우르는 헤리티지컨설팅 전문 인력과 신탁 상품 조직을 통합한 ‘헤리티지솔루션본부’ 등 국내 자산관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오선미 SNI·플랫폼전략담당 상무는 “삼성증권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초부유층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며 “가장 많은 초부유층 자산을 관리하며 쌓아온 압도적인 노하우는 타사가 모방할 수 없는 삼성증권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다. 이어 “새롭게 부유층에 합류하는 고객들이 자산관리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삼성SNI와 함께 새로운 자산시장의 기회를 선점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godhe@